

# 학종 여전히 대세... '재수생·정시비중·선발인원' 변수로

## 2021학년도 수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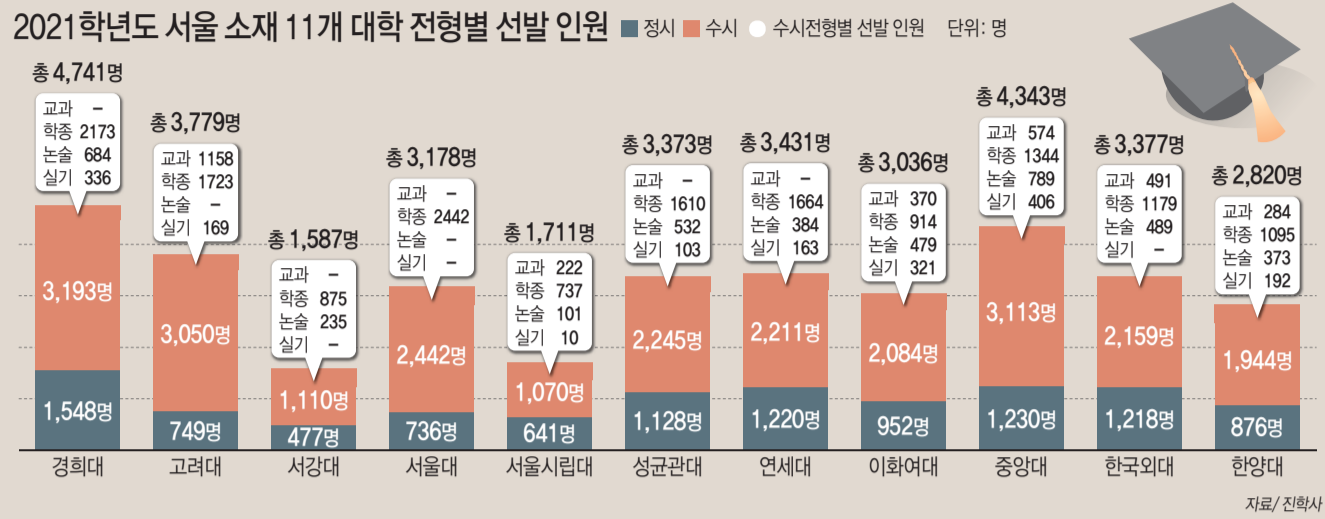
서울 11개 대학 정시 비율 5.2% ↑ 수능 재수생 응시비율 11년 중 최고 정시모집·수시전형 함께 준비해야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중이 소폭 증가하지만,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대세다. 수능은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 다소 변화가 있고, 정시모집 선발 인원 증가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앞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대학마다 모집단위마다 소폭 변화하는 선발방식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8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1학년도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11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30.4%(1만775명)로 전년 정시보다 5.2%(531명) 증가했다.

이들 대학 중 성균관대와 한국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정시 선발인원을 늘렸다. 이화여대가 전년보다 169명 더 선발해 가장 증가 인원이 많다.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했지만 정시모집에만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



추천받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제한을 완화했다. 전형방식도 기존 1단계 통과 학생에게만 부여하던 면접기회를 지원자 모두에게 부여하고, 서류평가 20%를 반영한다. 특히 고려대 학종 계열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부, 자소서 등의 서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수시모집 전부를 학종으로 뽑고, 수능 100%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52명 더 뽑는다.

서울시립대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37.5%로 높은 수준이고, 논술전형의 경우 전년 단계별 전형 선발에서 올해 일괄합산전형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교과 성적 반영 방식도 기존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활용 방식에서 등급 반영으로 단순화했다.

한국외대의 경우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합산 수시모집으로 63.9%를 뽑고, 정시모집 비율은 36.1%이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20학년도에 폐지했던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다시 도입한 것이다. 교과 성적도 기존 성적만 반영하던 것에서 출결과 봉사까지 함께 반영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인문계열 수능 영어 반영비율을 15%에서 20%로 높였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다. 일반적으로 수능에 강세를 보이는 재수생 이상 졸업생 비율이 올라갈 수 있어서다. 때문에 수시전형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0년~2019년까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입학자 중 재수생 비율은 16.3%에서 21.5%로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재수생 입학자 비율은 28.4%에서 지난해 신입생 10명 중 3명 이상(31.0%)으로 증가했다.

수능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 이상 비율은 2020학년도 25.9%로 최근 11년간 가장 높았다.

올해 대학 입학자 중 재수생 비율은 2020 수능 재수생 지원자(25.9%, 전년

대비 3.1%p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전국 단위로는 20% 초반, 서울 소재 대학 기준으로는 30% 초반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도 학령인구 감소와 최근 재수 추이까지 종합 고려하면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재수생은 12~13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11개 대학의 2021학년도 대입도 학종 선발인원이 44.5%(1만 5756명)로 여전히 가장 많다.

논술전형은 서강대를 제외한 8개 논술 실시대학이 선발인원을 줄였다. 그중 연세대가 전년도 논술 선발 인원 중 약 37%(223명)를 줄여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어 서울시립대는 전년 대비 28.9%, 이화여대는 11.8% 줄여 뽑는다.

교과전형은 고려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에서만 실시하고, 고려대, 이화여대 교과전형과 중앙대 학교장추천전형은 추천받은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별 바뀐 선발 계획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희대의 경우 정시 선발을 늘리는 대신 교과전형과 논술전형 인원은 줄였다. 수시전형에서는 논술전형에서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했다. 2019학년도 논술 지원자 중 최저학력기준 충족 비율은 42.1%로 선호도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비율은 대체로 비례한다.

고려대는 변화가 가장 큰 대학이다. 학생부교과 선발인원을 대폭 늘렸고,



한국교총 신년교례회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교총 신년교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하은수 한국교총 회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손진영 기자 son@

## 초등 방과후돌봄 대상 30만 4000명으로 확대

# “신학기 전 돌봄교실 확충·환경개선 추진”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발표 KB금융 기부금 지원, 리모델링 병행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대상 학생이 30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는 등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후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말 기준 6117개 초등학교(1만3910실)에서 29만여명의 학생이 이용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올해는 전년보다 대상자가 1만4000명 증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대구 속천초 돌봄교실 확충·환경개선 사례

/교육부

기간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학교도 대체교실 등을 이용해 돌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해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36실)하거

나 노후 돌봄교실을 리모델링(1503실)하는 등 총 1700여실의 돌봄교실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125개교 224실이 혁신적 리모델링이 병행 추진된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세종대 미래교육원

## 15일 부동산 재테크 특강

세종대학교는 미래교육원이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 B107에서 '2020년 부동산 마인더스 아카데미 론칭기념 특별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재테크 특강으로 진행되며, 2020년 부동산 분야에서의 재테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자문위원 박원갑 강사는 2020년도 변경된 부동산 정책 및 유망 투자처 분석 등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지앤비 자산운용 대표 문동진 강사는 정책변경에 따른 경매시장 공략법 및 돈 되는 특수경매 분석 등을 안내한다. /한용수 기자

### 성균관대

## '경영대학동문상' 수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동문문화(회장 김동필/㈜넥스팜 코리아 회장)는 8일 오후 웨라튼서울플래츠강남호텔 다이내스티 홀에서 '제10회 자랑스러운 경영대학동문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경영대학동문상'은 모교와 경영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이용국(㈜신원헬트 회장, 전용주(㈜해시스냅 회장 2명이다. /한용수 기자



전용주 해시스냅 회장, 이용국 신원헬트 회장

## 경희사이버대, 10일 신·편입생 모집 마감

전체 재학생 중 79% 장학 혜택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10일 마감한다. 앞서 경희사이버대는 인공지능, 초연결사회 등 문명의 대전환기 변화를 이끌어갈 전공 개선을 목표로 7개 학과(전공) 신설 및 개편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2020학년도부터 기존 관광레저항공영

영학과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로 개편하고 관광레저경영전공과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을 신설 및 개편했다.

수능,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하거나 졸업한 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졸업 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전체 재학생 중 약 79%는 장학 혜택을 받는다. 직장인, 전업주부, 학사편입자, 농어민, 외국어우수자, 스포츠인재, 군·경·소방가족, 경희동문, 다문화, 후마니타스, 음악인재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혜택을 마련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용수 기자